

# 우리 아파트의 자랑,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 전일광장

이기연  
한국지방정부연구원장  
교육학박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올 추석 지역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딱 들어맞는 덕담이 됐다. 추석 당일 광주를 연고로 한 KIA타이거즈는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시민프로축구단인 광주FC는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첫 경기에서 일본 J리그 요코하마를 상대로 7대 3의 대승을 거두었다. 추석 연휴에도 짜증나는 폭염 특보가 계속됐는데 지역 연고 야구단과 축구단이 그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해소해 주었다.

연휴 기간 내내 섭취한 고칼로리 음식 때문에 무거워진 몸은 동네 산책에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17회 파리 패럴림픽 남자 탁구 단식, 우리 아파트의 자랑 김영건 선수 금메달 획득!’이라는 현수막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난 파리올림픽은 여러 경기를 일부러 찾아서 보았는데, 이번 패럴림픽은 뉴스에서 한두 번 짧은 소식을 들은 것 말고 많은 경기를 보지는 못했다. 핑계를 대자면, 필자가 시청 가능한 시간에 패럴림픽을 중계해주는 채널이 너무 적었다. 패럴림픽 폐막 후 일주일이 훌쩍 지난 후야야 내걸린 현수막 덕분에 영광스런 금메달리스트가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패럴림픽(Paralympics)은 ‘대등한,

함께’ 라는 의미의 ‘para’와 올림픽 ‘Olympic’이 합쳐져 ‘다 함께하는 올림픽’이라는 의미를 담은 장애인 올림픽을 말한다. 1948년 2차 세계대전에서 적수 장애를 당한 전역 군인들의 재활을 위한 운동 경기 요법이 시초가 되었다. 금메달 수는 올림픽에 비해 패럴림픽이 훨씬 많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금메달은 329개, 패럴림픽 금메달은 549개로 올림픽보다 1.7배 많다. 경기 종목의 수는 비장애인 올림픽이 32개, 패럴림픽이 22개로 적지만, 패럴림픽은 장애 부위와 정도에 따라 세부 종목이 나뉘기 때문에 메달 수가 더 많은 것이다.

이번 파리 패럴림픽은 대회 최초로 올림픽의 슬로건과 패럴림픽의 슬로건이 같았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Games Wide Open)’라는 슬로건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활짝 열린 올림픽 대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남수단 등 난민국 출신 선수들도 난민팀으로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참가하였다. 그동안 경기장에서 열렸던 개회식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야외인 센강에서 열렸고, 패럴림픽의 개회식은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 콩코르드 광장 등에서 진행되었다. 올림픽 마라톤 경기 코스를 그대로 이용하여 파리 도심 일대에서 ‘모두를 위한 파리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 일반인들도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이벤트엔 2만 여명의 전 세계 러너들이 참여하였다.

패럴림픽은 장애인이 가진 잠재력을 세상에 알리는 소중한 계기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기에 참가하는 것 자체

로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선수들이 갖게 될 자부심과 성취감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장애인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지극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은 생활체육에 비해 전문체육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장애인 체육 참여율은 24.2%로 비장애인의 체육 참여율 60.5% 보다 훨씬 낮다. 장애인들의 운동 목적은 건강 및 체력관리 82.9%, 재활치료 11%로 나타나 향후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이다. 광주시는 남구와 북구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운영 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차별없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반다비 체육센터 이외에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곳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운동을 하거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 등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개선과 관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장애인 체육 인구가 늘어났을 때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건 선수와 같은 우리 동네의 자랑이 더욱 많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광주지하철 내달 8일부터 에스컬레이터 이용 제한

광주지하철이 문화전당역부터 평동역까지 1호선 13개 역을 대상으로 10월8일부터 12월 말까지 에스컬레이터 안전 공사를 진행한다. 공사 기간 일시적으로 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공사를 진행하는 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총 65대로, 안전 부품 교체와 핸드레일 시스템 신규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핸드레일 시스템은 손잡이와 디딤판의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공사는 각 호별 1~4일 가량 소요되며 이용 중단 기간은 역사 내 안내문과 광주교통공사 누리집·SNS를 통해 공지된다.



정부 '로또 구조조정' 나선다

최근 로또 '무더기 당첨'이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1등 당첨금 상향, 조작 논란 등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은 10월25일까지 이어진다. 현재 로또 6/45은 814만분의 1의 확률로 1등에 당첨되는 상품이다. 회당 약 1억1000건이 판매,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 수준이다. 조사 결과 상황 의견이 우세할 경우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회당 게임비를 올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사 블랙리스트' 후원행렬 피해자 외면하는 의료계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신상을 적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기 위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비공개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스톡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를 '영웅', '투사'로 칭하는 후원 인종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의대생 자녀를 둔 부모들도 후원금을 전달, 모금액이 2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수의대학부모연합은 "꼭통 과학에 근거한 2000명이라는 숫자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다"며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킬 어른은 우리밖에 없다"고 밝혔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뜬 '바다표범'

LG전자가 지난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바다사자'를 주제로 한 위키 동물 보호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모습을 구현해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LG는 지난 4월(뉴욕)과 7월(캘리포니아)에 두 차례 캠페인 영상을 띄운 바 있다. 이번 영상은 전년부터 시작된 '뉴욕 기후 주간'에 맞춰 지구 온난화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 부족에 시달리는 바다사자의 모습을 3D로 구현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65 색채와 기업

### 美 타임지 “경기 침체때 검은색 유행”

#### ●색채와 마케팅

신혼부부를 비롯한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검은색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3년~4년 전부터 유행해오던 것으로, 국내에는 1988년 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검은색의 유행은 업계 관계자 또는 일부 산업디자인 교수들과 일부 사회학자들의 견해(색갈 '흑색 선풍', 일간스포츠, 1989년 11월 18일)에 확실한 차이가 있다.

업계 관계자나 일부 산업디자인 교수들은 “흑색 문화는 현재 세계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국민에게 감정이 고급스럽고 멋쟁이 컬러로 인식돼와 생활용품의 블랙 패션을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소비패턴이 다양해지고 실내 공간을 토틸 패션으로 꾸미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이런 부류의 상품을 찾는 소비층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이 복고풍을 추구하는 신고전주의로 흐르고 있어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는 검정을 많이 쓴다. 이런 경향이 상업적 측면에서도 고객들의 매출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 색상을 도입하고 있다.”

일부 사회학자들의 견해는 “경기가 침체될 때는 주변의 색상들이 어두워

지기 마련이다. 검은색의 선호는 일대 공황을 예고하는 징조로 볼 수 있다.” 2008년 3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경기침체로 검은색이 유행한다고 예측했다. 왜냐하면, 2008년 3월은 미국 주요 금융기관들의 1분기 실적 악화로 금융위기의 공포가 다가오던 때였기 때문이다.

경기가 불황일 때와 경기가 호황일 때 립스틱 색깔의 차이가 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훈풍을 타고 여릿하고 화사한 빛깔의 분홍색 계열의 립스틱들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2008년 경기가 불황일 때는 빨간색과 검은 느낌이 날 정도로 강렬한 색상의 립스틱들이 유행하였다. 불황일 때는 여성들의 입술 색깔이 짙어진다. 속살이 입증되고 있다.

2009년 표준색을 제시하는 팬톤컬러연구소 리트리스 아이즈먼(Leatrice Eiseman) 소장은 검정은 불경기에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색상이라고 하였다.

증권기에는 색채와 관련된 단어가 있으며, 이 색들은 파랑, 빨강, 노랑, 검정 4가지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은색인 블랙 칩(Black Chip)은 탄광이나 석유 등의 에너지 관련 종목을 의미한다.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는 1987년 10월19일 미국 증시

가 대폭락한 날이다.

#### ●색채와 로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대부분 자기만의 고유한 컬러 이미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 샤넬(Chanel)은 1920년부터 'C'자 2개로 만든 로고를 하얀색 포장에 검은색을 고수하고 있다. 샤넬의 로고는 샤넬 No. 5라는 향수에 C자가 2개 엇갈리게 맞물려 시작되었다. 로고의 색상은 장교들의 유니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동근 금색 버튼이 샤넬의 대표적인 색이다.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 로고는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캘빈 클라인의 머리글자에서 유래되었다. 로고의 색상은 무채색인 검정을 사용하고 있다.

소니(Sony)의 로고는 알파벳으로 하는 어떤 언어로 읽더라도 '소니'로 읽히며, 우리 회사는 작지만, 그것이 늘어나서 젊은이들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다. Sony는 'Sound'와 'Sonic'의 어원인 된 라틴어 'Sonus'와 '작은 아이'의 의미인 'Sonny'의 합성어이다.



문화예술 기획자/철학박사·미학전문

## 청소년 딥 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범죄다

### 독자투고

딥 페이크(Deep 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합성어로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SNS에 공유된 내 사진이 재료가 되어 딥 페이크로 음란물과 합성된 사진과 영상이 만들어져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딥 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 의하면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상반기(1~7월) 총 29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딥 페이크 범죄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현장에서 딥 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퍼져 나가는 것은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향후 더 확산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다.

기동순찰대는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딥 페이크 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과 유관기관(학교 관계자)회의 통해 학교를 보호하고 학생들 안전을 지원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타인의 사진을 캡처, 합성유포 하거나 개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중대한 사회적 범죄임을 학생들에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정병준 <전남경찰청 범죄예방계 기동순찰대 경사>

##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